

대통령과 책

- 폭염의 8월, 예년 같았으면 화제는 단연 휴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의 8월은 휴가 외에도 화제가 많았습니다.
- 무엇보다 재벌 총수의 죽음이 있었으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것을 비판한 사람들의 자식까지 동반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스스로 택하는 운명이란 어느 경우에도 안타깝고 가슴 저린 일입니다. 그리고, 자살을 부르는 사회란 어떤 수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비감의 사회입니다.

죽음만이 화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국은 정국대로 어수선해서 아직도 이 나라는 대통령과 언론의 싸움판처럼 비쳐집니다. 대통령과 언론 간의 살바싸움이 옳으나 그르냐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이 보다 더 건설적인, 보다 더 육화된 논쟁과 토론으로 이어졌다면 한여름의 폭염을 견디는 데 유효한 담론으로 간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토로해 보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지금 문화계에서 2005년 프랑크푸르트 주빈국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기 위해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구슬땀을 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판저널>은 국내외 정치풍향과는 관계없이 미래의 문화국가 지향도를 만들어가는 데 여념이 없는 문화관광부와 출판문화계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흐름 속에 단 몇 줄에 불과했던 대통령의 휴가 동정이 신문 한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저널>은 그 기사에서 대통령의 휴가배낭 속에 담긴 네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폴 데이비스의 <파인만의 여섯 가지 물리이야기>, 루이스 거스너의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이지평의 <주 5일 트렌드>, 최장집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였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책을 읽을까 궁금한 것은 민초들의 당연한 관심일 터이고, 여기에 덧붙여 <출판저널>은 대통령이 왜 그 책들을 택했을까를 곰곰 뜯어 보았습니다.

개괄하자면 대통령이 택한 책은 주제 의식이 뚜렷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참여정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네 권의 책은 대통령이 직접 골랐거나 대통령의 코드를 잘 알고 있는 비서관이 택했을 거라는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한여름에 독서를 많이 해야지 결심했던 분들도 책 한 권 못 읽고 지나쳤을 수 있고, 대통령 또한 네 권의 책을 다 못 읽고 휴가지에서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다들 독서의 계절이라고 일컫는 가을에 대통령의 휴가 배낭 속에 들어 있던 책을 읽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 그 목록과 몇 줄짜리 줄거리가 가을날의 책임기에 보탬이 된다면 <출판저널> 역시 폭염 속에서 9월호를 만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임동헌_본지 주간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이야기》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20세기 최고의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는 리처드 파인만이 캘리포니아공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1, 2학년 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물리학 강의 가운데 가장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 여섯 편을 담았다. 1999년 미국 랜덤하우스 편집자들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여섯 번에 걸쳐 진행된 저자의 특강내용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안락한 보수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 정치와 시대 상황, 이러한 현실의 역사적 구조적 기원,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문제 등 한국정치의 보수성에 대한 분석과 위기의 실상을 담고 있다.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1993년 루이스 거스너(Louis V Gerstner Jr.)가 모든 이의 우려 속에서 IBM의 ceo로 등장한 뒤 2002년 3월 모든 이의 박수를 받으며 물러날 때까지 드라마 같은 기업회생 과정을 그린 자서전이다. 세계적인 ceo는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을 이끄는가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주 5일 트렌드》

주 5일 근무제 시대가 됐을 때 나타날 각종 트렌드를 내다보고 근로자들의 자기개발과 여가활용,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를 시도한 책이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면 근무 시간이 짧아진 만큼 실력 위주의 인사제도가 강화될 것이므로 창조적이고 남다른 부가가치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인재가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